

지역 매아리

하반기 고창군청 아이디어 당선작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 고창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한 '하반기 고창군 아이디어 왕'을 선정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거쳐 6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최종심사인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안자의 발표 등을 거쳐 재무과 조정호 세정팀장의 고창을 상징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고창군 진입경계 고창 상징물 조성'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아울러 환경시설사업소 정혜숙 생활환경팀장의 선운산 자갈채를 상품화하기 위해 제안된 '선운산 녹차정원 조성'이 우수상을, 기획예산실 김영화 주무관의 고창 모양성 주차장과 문화의전당 벽면을 활용한 '모양성 자동차극장 운영'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마을권 공동우물 정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거나 아이디어 등 3건의 참여상이 선정되었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로 보내져 향후 추가검토과정을 거쳐 추진계획 및 시기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2018년 생활민원 종합안내서 제작·배부

고창군이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2018생활민원종합안내서' 1000부를 제작·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민원종합안내서는 각 마을 회관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귀농인·전입자·주민에게 안내되어 생활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이사 후 처리해야 할 각종 신고사항부터 생활에 필요한 민원처리 절차와 행복출산·안심상속·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다양한 복지분야 지원사업 등 알아두면 유익한 민원 종합정보와 고창군의 가볼만한 관광지과 축제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고창으로 전입해 온 귀농·귀촌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새 거주지에 대한 친밀감과 안정감을 갖도록 도우미 역할을 북돋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수록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성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땅콩 명품화 사업 추진 박차

고창군, 땅콩 저온저장고 준공... 출하 수요조절·가격 안정 가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땅콩사업의 제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8일 박우정 군수 대성농협 박운규 조합장을 비롯한 땅콩 재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송면 대성농협 땅콩 저온저장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창군은 전국 땅콩 생산량의 7%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하여 품질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저온저장고 신축(330㎡)을 통해 땅콩 출하 수요조절과 가격 안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신진보관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땅콩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 마케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32ha의 땅콩단지를 조성해 재배기술 상향평준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생산비 절감 농자재·농기계 저장시설을 지원했다.

특히, 땅콩(싸나물)이음 치유음식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해 땅콩을 이용한 치유음식 레시피 개발과 제품의 유통 채널 다변화 통한 소비확대를 도모했다.

특히 신제품 신발광 종자 보급 등 다수확 재배기술 투입으로 예년대비

30%정도 수확량이 증가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땅콩이 전국 주산지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중국산 등 수입 땅콩에 맞서 고창땅콩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교육, 제품 개발 및 상품화·마케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내년도 6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땅콩 가공제품 개발과 가공시설 보안을 통한 땅콩 특화단지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속 추진·좌표체계 변환 사업 96% 추진을 달성 높은 평가 받아

정읍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이장숙(시설 6급)씨가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시는 평가에서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점, 일체의 잔재인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좌표체계를 변환하는 사업에서 96%의 추진율을 달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한 정부 합동평가 결과와 사업 추진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기관과 공무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현실경계를 반영하여 지적 도면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이다.

관련해 시는 2012년 진흥1지구를 시

작으로 올해 현재 8개 지구를 완료하고 2개 지구를 추진 중으로, 약 4200필지 318만5000㎡를 디지털 지적도로 구축했다.

시는 또 2018년 초산1지구와 신대인1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선정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민 접촉,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확대를 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물론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서서동점기(西勢東漸期),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루고자 했던 전국적인 반일민족항쟁이다.

그 숭고한 정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거세되어 반국권적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2004년 3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1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진척이 없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총사업비 383억 88억 7천 만원)을 2018년도 국가예산(1)을 확보하여 전액 국비 지원으로 동학농민혁명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동학과 관련 전봉준 탄생 행사, 유적지탐방,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음성축제, 녹두대상 시상과 녹두교실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지역 정체성으로 승화하는 정신산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한 개정으로 국가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고창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가사업이 해당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문한 계획이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4개 시군에서 제3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다는 단체장의 서명을 받은 재정건의문 합의사가 지난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고창에 동학관련 기념시설의 건립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푸른도시과 김진우 도시계획팀장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표창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국가 예산 확보 등 군정 역점사업에 큰 성과를 이루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오는 28일 중앙인사에서 부안군 푸른도시과 김진우 도시계획팀장(사진)이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지난 1992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김진우 도시계획팀장은 그간 각 부서를 거치면서 얻은 노하우를 동료직원들과 업무 연찬은 물론 후배들의 기술지도에 앞장서 군의 토목업무의 수

준을 향상시켜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김 팀장은 7개면 지역 주민과 토론 문화를 조성하려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추진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착공되어 활발히 사업 중에 있으며, 용지보상 업무도 토 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왔다.

김 팀장은 주민의 편의에 서서 총직스러운 주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자랑스러운 선배 주민들로 부터는 모범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부안군 모범공무원상을 비롯하여 지방도로공사 유공 지사 상, 지방도로개발사업 추진 유공 행정자치부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 건설교통과 정춘수 건설행정팀장 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평소 근면·성실을 생활 신조로 창의적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관공객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헌신적인 업무를 추진한 부안군 건설교통과 정춘수 건설행정팀장(54)·(사진)이 우수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정 팀장은 지난 1988년 11월 공직에 임용되어 30여 년 지방공무원에 재직하면서 2011년부터 4년여 동안 축제업무를 담당하여 부안군의 대표축제를 개발하려고 산·물·바다와 노력이 어우러진 부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부안미실축제를

개발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본인 여행가이드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광조제, 변신해수욕장, 부안 영산대마포크 등 캠퍼어를 실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부안·정읍·고창과 연계한 서남권 관광생태여행을 개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다.

또 땅은물사업소 근무시 대한민국 공기청정역평가에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부안군이 전국 최우수 군의 등급을 전라북도 도로유지관리 평가에서 부안군이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는데 은 정성을 기울였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야생동물 보호 위한 불법엽구 수거

정읍시는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멸종위기종 등 각종 야생 동물들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회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입입면과 신정동 일원에서 울무 14점,

및 3점 등 모두 30여점을 수거했다.

한편 허가 없이 불법엽구나 독극물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찻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 | 750ml 1ea/12% |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 | 375ml 5ea/13% | **GIFT SET 6**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sanwine.com